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25.(화) 14시 <11.26(수) 조간>	배포	2025. 11. 25.(화)

산업통상부 조직 혁신 박차, 장관주재 첫 타운홀미팅 개최

- 전담혁신조직(조직혁신TF) 신설로 조직문화 개선과제 지속 발굴·이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25일(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 주재로 全직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한 산업통상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익명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0여 명 참여)를 공유하였으며, 국별·직급별 대표자들이 조직문화 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①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30%), ②대미 투자 등 통상정책(26%), ③경제·산업 안보정책(20%) 등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산업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형식적 보고 없애기 및 비대면보고 활성화, ②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③정기인사 정례화 및 주요보직 공개인사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관세협상 타결 등과 같이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 넘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전담 조직으로서 지난 10월 27일 「조직혁신팀」을 이미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인사 혁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조직혁신TF	책임자	팀 장	김은하 (044-203-5534)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5537)
			주무관	임종민 (044-203-55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